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 주임신부 : 권지훈(베드로)
- 사목회장 : 김성연(야고보)
- 사 제 관 : (808) 422-1040
- 사 무 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 <https://standrewkimhawaii.org>

제2271호

2025년 10월 19일(다해)

미사 안내	평일	화, 수, 금 : 오전 10:30 목 : 오후 7:00 (성체 강복: 매달 첫 번째 목요일 7시 미사 중)	주일	토 : 오후 4:00 일 : 오전 06:30, 10:30 오후 4:00(St. Peter & Paul 성당, 매월 셋째 주 마우이 공동체 오후 2:30)
연령회	병자성사나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 환자 또는 망자 발생 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 김미아 헬레나 Cell : 808.291.7811			



오늘의 미사

연중 제29주일

▶ 1독서 : 탈출기 17,8-13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화답송 :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하느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
▶ 2독서 : 티모테오 2서 3,14-4,2	▶ 복음 : 루카 18,1-8

① 11월 16일(일)은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② 11월 16일(일)은 마우이 공동체 미사(오후 2:30)가 있습니다.

(St. Anthony Church - 1627 Mill St. Wailuku, HI 96793)

③ 고해성사는 미사 전후 고해소에서 있습니다.

④ 미사 참석시 명찰 착용 부탁드립니다.

⑤ 10월 21-24일까지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⑥ 매월 셋째 주 '화해와 일치 주간' (10월 19일~25일)

⑦ 매월 넷째 주 10월 26일(일)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헌'

⑧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방문을 환영합니다.



사목공지



사목위원회

① 교육분과 공지

교리교육 주제: 생명을 주시는 성령

시간: 10월 19일(일) 오전 9:00, 장소: 새신자 교리실

교리에 관심있는 신자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② 영어교리 신청 공지

시간: 매주 (토) 오후 5시~6시 장소: 새신자 교리실

대상자: 외국인 배우자 또는 대학생 이상의 세례, 견진 대상자

문의: 사무실로 신청해 주세요. (마감: 11월 1일)



구역 및 단체

① 연령회 모임

일시: 10월 19(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② 알라모아나 구역 모임

일시: 10월 25일(토) 오후 6시

문의: 김엠마 228-0088

③ 와이파후 구역 모임

일시: 10월 25일(토) 오후 6시

문의: 안마르첼라 391-8347

④ 소공동체 구역장 모임

일시: 10월 26(일) 교중미사 후

장소: 새신자 교리실

⑤ 꾸리아 월례 모임

일시: 10월 26(일) 교중미사 후

장소: 컨퍼런스 룸

⑥ 하와이카이 구역 모임

일시: 10월 26일(일) 오후 6시

문의: 김정남 글라라 349-2654

※ 성당 창고 정리를 합니다

일시: 11월 1일(토) 오전 9시

성당에 있는 창고 정리를 실시합니다. 봉사해 주실 분을 초대합니다.

※ '기도' 에 대한 특강 안내

일시: 11월 9일(일) 교중미사 후

집전: 김다울 클레멘스 신부님 (시애틀 성 김대건 성당 주임)

신청: 각 미사예물 접수처

담당: 교육분과

※ 하와이 한글학교 협의회가 주최한 한글날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서 우리 성당 한글학교 학생들이 다음과 같이 수상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초등부 1등 이지윤, 2등 이서윤 / 중등부 1등 이승윤 / 고등부 1등 박서연



헌금

10월 25/26일 World Mission Sunday 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10월 11/12일 : \$11,411				지난주 미사 참례자 수	총 317명
	주일헌금	교무금	2차헌금	특별헌금		
	\$3,512	\$6,385	\$1,243	\$271		

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 599-9810, 592-5011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자동차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	뷰티터치 (BEAUTY TOUCH)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808)271-4802
New York Life 은퇴연금/학자금/투자/재무설계 차 그레고리오 808-226-3344	Ginzawon (긴자원) Korean B.B.Q (Waikiki) 문의: 김태영 안토니오 808-220-0768 808-922-3387	묘지매매 묘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심소영/ 808-798-5100

희년 특강 [제 14 강] 세상의 희망과 십자가의 희망 (요한12,24-25)

그리스도인의 희망:증언과 십자가의 씨앗(1베드 3:8-17, 요한12:24-25)

1. 파스카의 희망: 그리스도 부활의 증언

사도 베드로는 첫째 서간에서 그리스도인의 희망이 "개념이나 감정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강조합니다(1베드 3:15-16). 이 희망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세례의 은총으로 매일 새롭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부활의 기쁨을 증언해야 합니다. 희망은 내면의 고백으로 머물지 않고, 이웃에 대한 친절, 용서, 선한 행실로 표현되어야 합니다(1베드 3:9, 17).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겸손과 자비로 응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희망입니다.

2. 십자가의 희망: 죽음과 부활의 역설

예수님은 밀알의 비유로 희망의 본질을 설명하셨습니다. (요한 12:24).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은, 세속적 희망이 무너지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희망의 씨앗이 탄생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한 창조적 죽음입니다. 죽음의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이 발하며, 이는 그리스도인의 희망이 "자기 부정과 나눔"을 통해 열매를 맺는 과정임을 상징합니다.

3. 고난 속 희망: 축복과 평화의 도구

베드로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보다 낫다"(1베드 3:17)고 말합니다. 이는 고통을 미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과 예수의 연대를 의미합니다. 악자 편에 서거나 용서할 때, 우리는 부활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됩니다(1베드 3:14-16). 축복하는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선포입니다.

4. 현대적 적용: 희망의 증언자

세속 사회는 권력과 성공을 희망으로 여기지만,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약함 속에서 강함을 발견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희망은 "좋아요"나 재산이 아닌, 관계 속에서 증명되는 사랑입니다. SNS에서 비난 대신 용서를, 경쟁 대신 나눔을 실천할 때, 희망의 빛이 비칩니다. 매일 성경 묵상과 기도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작은 밀알처럼 자신을 내어줄 때, 희망은 공동체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추천영상: YouTube 이병근 신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희년교리)



알아두시다

ARBOR Financial Group NML# 236669

심소영: 주택융자담당
Cel:(808)798-5100
Email:sharis@arborfg.com

최 니콜 부동산

Locations,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메디케어 보험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광고 문의

사무실
808-422-1010

A'ALA Meat & Seafood Inc

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열 사무엘
samseo@aalametandseafood.com

보나 최 부동산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



※ 연중 제29주일 강론 요약본

오늘은 연중 제29주일이자 전교주일입니다. 전교주일은 교회가 매년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새롭게 일깨워 주는 날입니다. 선교는 멀리 떠나는 몇몇 사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끈질긴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존재였던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재판관에게 정의를 청했습니다. 결국 불의한 재판관조차 귀찮아서 그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께서야 당신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끈질긴 기도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하느냐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청원이 아니라, 하느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며, 포기하지 않는 희망의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또한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믿음을 지탱하는 힘이며, 신앙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원동력입니다.

전교주일은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라는 초대입니다. 가정 안에서는 사랑과 용서, 기도와 인내로 신앙을 전하는 것이 선교이며, 사회에서는 정직과 정의, 나눔과 연대로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말보다 삶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기도는 끈질기고 진실한가? 너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가?”우리가 과부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할 때, 우리는 이미 세상 속의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의 삶을 통해 하느님께서 오늘도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권지훈 베드로 신부

※ 미사 : 우리의 행위로써 봉헌하는 제사

「미사 중에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행위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도를 위한 합장, 무릎을 꿇는 행위, 일어서는 행위, 인사를 하는 행위 등 우리가 미사에 익숙해져서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분명 전례 안에서 우리의 행위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보편교회에서 특별히 전례 안에서 신자들의 능동적인 참여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 “동작과 자세”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전례헌장 30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능동적 참여를 증진하도록, 백성의 환호, 응답, 시편 기도, 따름 노래, 성가와 함께 행동이나 동작과 자세를 중시하여야 한다. 또한 거룩한 침묵도 제때에 지켜야 한다.”

지난 시간에 미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거룩한 표징”으로 거행되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표징으로서의 전례와 연결되는 부분이라면, “거룩한 표징” 가운데 하나로 “동작”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예식들은 근본적으로 서로 의존하는 “동작과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작은 전례의 표징과 상징들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기에 중요합니다. 특히 미사는 거룩한 표징을 통해서 하느님의 행위와 은총을 표현하기에, 우리 입장에서 올리는 거룩한 표징인 우리들의 행위는 매우 중요한 화답이기도 합니다.

전례 안에서 동작은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행위를 배제하고는 미사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봉헌하는 미사 역시, 집전자들의 동작과 말을 통하여, 생기를 돌우는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고, 우리들의 행위로 인해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곧 우리가 참여하는 미사 안에서 ‘행동이나 동작과 자세’는 능동적인 전례 참여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더욱이 미사에서 동작과 자세의 일치는 예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는 요소입니다.

대전교구 윤진우 세례자 요한 신부